

“마음을 다해 염불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극락’”

주경 스님 (성원사 주지)

오십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앉은 거실은 열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에 오롯이 새기겠다는 듯이 두 귀를 꽂고 세우고 주경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주경 스님은 성원사 신도는 물론 초청 법회가 있을 때마다 오신채를 띄어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일러준다. 이 법문에 공감한 불자들이 하나둘씩 모여 갈양회를 만들었다.

갈양회 회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이 있는데 오신채(五辛菜)를 공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은 갈양회 서울 모임이 있는 날이다. 주경 스님이 특별히 서울까지 힘든 발걸음을 하였다. 스님은 그동안 빛진 밥값을 갚기 위하여 법문을 청하는 곳이 있으면 먼 길 마다않고 달려가신다. 대중들이 운집하는 큰 법회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규모의 가정 법회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주경 스님은 염불선을 주창하셨던 청화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그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주경 스님은 사람들이 염불선을 두고 타력신앙이라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하심 말씀이 참으로 많았다.

“염불은 타력신앙이 아니라 절대로 자력신앙입니다. 왜 자력신앙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법당의 부처님은 상징적으로 모셔놓은 것이지, 그것이 진짜 부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상 앞에 과일이나 떡 등을 올려 놓고 ‘복주세요’ 하고 불공을 올리는데 그것은 불공이 아니라, 그런데 전혀 불공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물병도 부처고, 컵도 부처고 법사의 육신인 고깃덩어리도 부처고 여러분도

부처입니다.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면 전자가 되고 전자를 쪼개면 중성자가 됩니다. 극미진 단계에 이르면 빈 공간인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인허(隣虛)라 합니다. 빈 것과 이웃했다는 뜻인데, 인허를 ‘진공묘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쪼개다 보면 파동 치는 순수한 에너지만 남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에너지, 때 묻지 않은 에너지를 두고, 부처님은 불성이라 했고, 예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 했고 공자는 태극이라 했습니다. 그 순수한 에너지가 바로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 마음을 잘못 쓰면 도구로 변하고 업으로 변해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자체가 부처 덩어리로 되어있어

리지 않을 때면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고 한탄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업이 생겨나는지 모른다. 주경 스님은 업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였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의 본질을 모르니까 업을 짓게 됩니다. 업이란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몸뚱이도 전부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움직일 때 집착하여 마음을 묶을 때 업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업을 짓습니다. 업장은 화를 내고 욕심낼 때 더 쌓이게 되고, 화를 내면 몸에서 먹구름 같은 아지랑이가 생깁니다. 업을 적게 지으려면 자비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비를 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광채가 발산됩니다. 바로 그 광채가 불성광명이요 아미타불입니다.

여러분들 본 마음이 아미타불입니다. 하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아파해

‘염불선’ 주창한 청화 스님 가르침 계승 화 다스리기 위해 ‘오신채’ 섭취 금기시 “구하는 바 없이 염불해야 진정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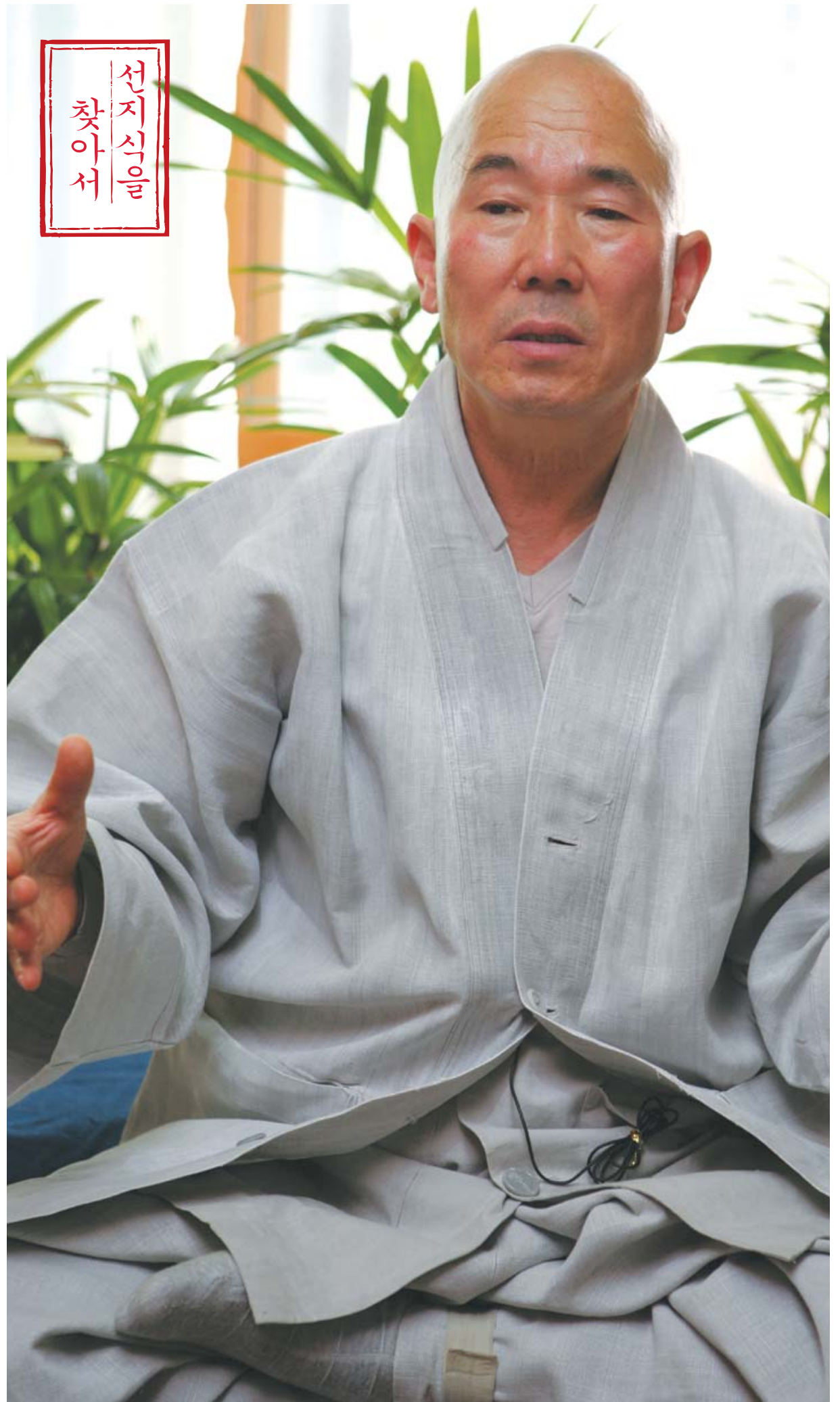
요, 우리는 전부가 다 부처인데 부처 스스로 부처를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타력신앙이라 합니까?”

동해안의 물이 자기 업으로 인해 추우면 얼음으로 변하고 바람이 불면 거품으로 변하지만 물의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 것처럼 탐심과 치심으로 마음이 좀 더러워졌다고 해서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 성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변질된다 해도 우리의 불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업에 가려서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일이 잘 풀

출 때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미타불입니다. 본 마음은 아미타불인데 업으로 인해 육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이처럼 내 몸에서 나뉘는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 나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내고 욕심내는 이 마음이 아미타불에 가려서 안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아미타불인데 왜 염불을 타력이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들의 업을 모두 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경전의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경 스님은 부처가 부처를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는 것도 엄연히 자력신앙임을 논리정연하게 설하여 주셨다. 주경 스님은 우리 몸뚱이 자체가 부처이며, 내 가족이 부처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처인데 어디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지를 묻는다. 부처란 자신의 몸에서 나뉘는 것이기에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진실 되게 부르다 보면 업장이 소멸되고 종래에는 해탈하게 된다. 해탈 즉 니르바나는 점점 작아져서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음을 말한다. 즉 무야가 바로 해탈인 것이다. 염불할 때 구하는 바 없이 염불해야만이 진정한 기도가 되고 참선인 것이다. 구한다는 것은 내 주위에 ‘나’라는 울타리를 쳐놓은 것과 같으며, 나만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밑바탕에는 너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주경 스님은 마지막으로 왜 오신채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 연유를 말씀하였다. “승업경>에 보면 ‘다섯 가지 매운 채소



는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생기고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신채를 먹는 사람은 그 특한 냄새 때문에 삼매를 뒤터라도 보살과 천신들이 수호해주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는 이유가 ‘깨달음’에 있으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다스려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입니다. 오신채는 몸을 부드럽게 하기 보다는 경직되게 만드는데, 경직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에 비해 감정의 변화도 심하고 화도 잘 납니다.”

주경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계율을 정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야 알았다. 경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부처님의 입김이 닿아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단 1초를 염불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한다면 그 1초가 바로 극락이 된다는 주경 스님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한 깨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선 1초의 극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극락을 누리는 그 1초가 모이고 모인다면 인젠가는 부처성품을 보게 되겠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주경스님은 태안사 청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태안사 정경선원 안거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제법선원에서 참선 수행했다.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의 사미승을 선발 임국시켜 한국불교와 한국 문화 등을 직접 지도하여 국제 포교사로 양성하고 있다. 불교사상연구소를 설립하여 염불선을 중심으로 불법을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금은 성원사 주지, 청화사상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무주불교 문화재단 설립 이사장이다.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쭉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입 받침대 2개입 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입) 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동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쭉양초

- 1 원기동 7.4φCm × 29Cm
- 2 돈타레 5.6φCm × 27Cm
- 3 밀 대 4.7φCm × 25Cm
- 4 1호 5.9φCm × 20Cm
- 5 2호 5.9φCm × 14Cm
- 6 3호 4.7φCm × 13Cm
-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아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아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동 마패 7.4φ X 30Cm
■ 등산용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 주소창 양초.net